중국의 온주 상인

이라크전후의 복구사업에 적극적인 대비

중국의 절강성(浙江省)의 남단 해변가에 자리하고 있는 온주(溫州)는,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보기 드물게 상혼(商魂)이 뛰어난 상인(商人)이 많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중국의 여러 지역이나 도시 중에서도 경제 성장률이 매우 높고,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기업가정신이 강하고, 경쟁력이 강하여, 중소기업들의 자율적인 공생을 위하여 그룹을 구성하여 상부상조하면서 순수 민간 자본으로 사업자금의 융자뿐만 아니라, 자율적으로 도로, 철도, 상하수도, 전기, 통신망 등 인프라 · 스트럭쳐(infra-structure)를 건설하기도 하며,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잘 소화하고, 적응하면서 가장 빨리 발전한 도시로 지목되고 있다.

한때 일본에서 100엔짜리 간이 라이터가 생산되면서 대유행하자 너무 흔해져서 넘쳐흐를 정도가 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도 일본에 이어 천원짜리 싸구려 일회용 라이터가 생산되면서 중소점포의 선전용으로도 공짜로 뿌릴 정도로 흔하게 나돌게 되어 성냥이 거의 사라질 정도가 되었다. 이 간이 라이터를 온주에서 값싸게 생산하여 일본과 한국에 저가공세를 시작하자, 얼마 못 가서 이 두 나라의 라이터 생산은 완전히 사라지고 온주산만이 시중에서 판을 치게 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이라크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온주시의 어패럴업계에서는 이라크전후의 복구사업에 대비하여 전쟁 중에도 온주 상인들이 위험을 무릎 쓰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 터키 등의 주변국에 판매거점을 마련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중동에서 귀국한 온주의 비즈니스 · 맨은 이라크전이 끝나면 복구사

업에 어패럴이나 텍스타일 등의 상품들이 틀림없이 필요하게 되는데, 복구사업도 경쟁하여야 하므로 선수를 치도록 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비즈니스·맨은 아프가니스탄 전후의 복구사업에서도 적극적인 활동으로 좋은 실적을 올렸는데, 이라크시장은 아프가니스탄보다도 훨씬 큰 구매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들 온주상인들은 공동으로 대량의 상품을 이미 이라크주변에 비축하고 있다고 한다. 온주시의 상공업 연합회에서는 이라크전후에 온주 상인들은 큰 비즈니스·찬스를 잡으려하고 있는데, 이런 움직임은 각종 어패럴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분야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한다.